

16세기 문인 윤현의 시 《령남탄》의 사상예술적특성에 대한 분석

김 희 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동시에 지난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1페이지)

16세기 문인 윤현은 당시의 사회적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적지 않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지금까지 그의 작품들은 거의나 알려지지 못하였다.

윤현은 1514년 파평군의 가난한 선비가정에서 출생하여 일찍부터 글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의 문학적자질을 높여나갔다.

윤현은 1531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였고 1537년에 문과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정계에 나서게 되었다.

윤현은 1545년 《을사사화》때 인종의 외삼촌 윤임일파에 가담하였다는 리유로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일파에 의하여 탄압당하였으며 멀리 령남으로 류배살이를 가게 되었다.

그는 20여년간이나 령남땅에서 류배살이를 하면서 당시의 사회적현실과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직접 목격하였고 이 과정에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그의 창작활동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그의 문집으로는 《국간집》(2권 1책)이 전해오고있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시 《령남탄》이다.

시는 198행으로 된 비교적 긴 형식의 5언고시작품이다.

시 《령남탄》의 사상예술적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당대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그것을 개혁할데 대한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이 시기 한자시문학의 주제령역을 확대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윤현은 우선 시에서 자기의 구체적인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당시 봉건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생동한 사실자료로써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서로서로 농사일을 그만두고서
업고 끌고 고향 떠나가버리누나
옷 한가지 걸친것 없는 알몸뚱이에
가다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

어떤이는 구덩이에 몸을 던졌고
어떤이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오
누군가는 절간에서 중노릇하고
누군가는 《도적》으로 자취 감췄소
...

군사병부 오래동안 정리도 않고
문서들은 어지러워 알수 없는데
죽은 몸에 온갖 부역 그대로 있고
파산된 집 근심걱정 더욱 커가네

미인을 구해서는 축첩을 하고
귀신에게 비는 놀음 일로 삼도다

...

시에는 통치배들의 착취로 하여 정든 고장을 버리고 정치없이 방랑길에서 헤매는 당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가정의 운명이 걸려있고 피땀이 스배인 논밭을 다 버리고 장사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 사람들, 불합리한 사회를 저주하며 인간세상과 담을 쌓고 절간을 찾아 중이 된 사람들, 통치배들의 학정에 더는 견딜수 없어 《도적》의 루명을 쓰고 반항의 길에 나선 사람들, 온갖 자연재해와 흉년, 그에 따르는 과중한 부담과 부역, 통치배들 속에서 성행한 축첩제도의 진상, 불교의 폐단들이 방불하게 그려져있다.

윤현의 시 《령남탄》에는 16세기 사회현실이 그대로 다양하게 반영되어있으며 봉건사회의 모순과 부패성이 폭넓은 생활화폭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그려져있다. 뿐만아니라 시에서는 주제사상이 시적전제와 제시, 해결을 통한 생활의 논리적흐름을 타고 필연적결과로 심도있게 밝혀지고있다.

윤현은 또한 시에서 불합리한 봉건사회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뚜렷이 표명하였다.

15~16세기 현실비판적경향의 작품들에서는 많은 경우 봉건사회의 모순과 부패성, 인민들의 가난한 생활처지를 보여주면서 당대 봉건사회의 불합리성 그자체를 폭로비판하는 데로 지향되었다.

윤현의 작품에는 당시의 시대적조건에서 절박한 문제들이 시인의 진보적립장에 의하여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

미더운 어진 신하 다시 나타나
나라를 받들어 한데 모이여
모든 일에 전심전력 기울여가며
나라의 정사를 잘해간다면

백성들 그 은혜 받아안으며
애민정치 향기롭다 칭찬을 하리
어진 정사 베풀다면 허물있으랴
시절이 편안한줄 어이 모르랴

...

시에 반영된 당파적리의를 내세울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노력할데 대한 문제, 나라에 진심으로 충실한 사람과 간사한 무리들을 엄격히 갈라보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울데 대한 문제, 온갖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완화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은 당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창작된 다른 작품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새롭고 혁신적인것으로서 16세기 한자시문학의 주제영역을 보다 현실적문제에로 지향시키는데서 의의를 가지었다.

시 《령남탄》의 사상예술적특성은 다음으로 시적정서의 진실성을 보장함으로써 16세기 한자시문학의 사실주의적경향을 강화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시 《령남탄》의 시적정서의 진실성, 작가의 정서적주장의 진실성은 윤현이 탐구하고 구사한 다양한 형상수법의 진실성에 기인된다.

윤현의 시에서 시적정서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작품에서 살아움직이는 시인의 모습으로, 그의 숨결로 뚜렷이 드러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시인이 시의 독특한 구성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한것과 관련되어있다.

시는 모두 네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청취－확인－재확인－시인의 주장》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령남에서 돌아온 나그네 있어
나를 위해 시골형편 얘기하네

...

이것은 시 《령남탄》이 첫 시작이다. 시인은 첫 부분에서 령남땅에서 돌아온 나그네의 말에서 당시 령남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알게 되는 형식으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다.

시의 둘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하루종일 멀고먼 길 걷고 걸어서
날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섰더라
문 두드려 자고 가자 부탁을 하고
저녁끼나 주겠는가 눈치 살폈네

집안에는 할아버지 한분이 있어
머리칼 눈썹마저 하얗게 췌네
물음시다 그 어떠한 사연이 있어
고독하게 빈 방안에 혼자 사시오

서정적주인공은 령남땅에 갔다온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는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령남땅에 갔다온 나그네의 이야기는 서정적주인공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멀고먼 길을 걸어서 령남땅에 도착하였고 어느 한 마을의 할아버지와 하루밤을 보내면서 고을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여기서 그는 늙은 몸에 마누라를 작년에 잃고 《맡아들은 수자리서 죽은 몸》이 되고 《둘째것은 수자리의 령을 못이겨/나를 두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였으며 《보는 사람 힘든 고역 당하다 못해/놀란 노루 달아나듯 흩어져》가버린 이 고을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할아버지의 말과 자기의 직접적인 목격으로 체험하게 된다.

서정적주인공의 확인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할아버지의 말을 음미하며 이 고을의 형편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

자정 넘어 옷을 입고 문을 나서서
마을길을 에돌면서 거닐어보았네

문짝들은 얼핏 보면 제대로 있고
들보마다 그을음에 그슬렸어도
굴뚝에서 나는 연기 보이질 않고
보이는건 거미줄만 둘러있지요

끈덕지게 생활을 추구하며 당시 시대현실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서정적주인공은 현실에 대한 자기의 울분과 분노를 격조높이 터뜨린다.

마지막부분에서 시인은 자기의 체험과 인식에 기초하여 당시 어지러워진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개하여 보여주면서 《손바닥을 뒤집듯 정사 옮기랴/한밤중에 힘겨웁게 생각굴리네》로 정서적마무리를 짓는다.

작품은 당시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보여줄수 있는 시적구성을 리용하여 가식이나 꾸밈이 없이 생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시적정서의 진실성을 보장하고있다.

윤현의 시에서 시적묘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생활을 정적인 상태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체취와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동적인 상태에서 그리고있는데 있다.

동서남북 헤여져서 먹을것 찾고
집없는 신세에 정처없이 떠도누나
제가 살던 정든 집을 어찌 잊으며
제가 가꾼 논과 밭을 어이 버리랴

누구인들 처자들을 사랑치 않고
누구인들 부모들을 생각 안하랴
륜리도덕 보존하기 어려워지니
그것들을 잊은듯이 떠나야 했소

시에는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었을뿐아니라 령남땅에 갔다온 나그네의 눈물겨운 정사와 그의 심리적상태가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시에서는 《나라정사 양뿔같이 꺾이질 않네》, 《메떼지 잡으려다 집땀지 놓치고》, 《손바닥을 뒤집듯 정사 옮기랴》, 《원망기운 하늘땅에 짝 찼네》 등과 같은 형상적비유법과 과장법, 수사학적질문과 같은 다양한 시형상수법을 활용하여 시적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고있다.

이처럼 윤현의 시 《령남탄》은 주제사상적내용의 진보성과 시적정서의 사실주의적특성으로 하여 16세기 한자시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다.